

일본, 메탄 하이드레이트 조사 착수

일본이 3년에 걸쳐 동해 쪽 근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(Methane Hydrate) 매장량 조사에 착수한다.

일본 언론에 따르면, 경제산업성은 Joetsu 앞바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조사를 시작해 6주에 걸쳐 Noto 반도 앞바다까지 해저를 조사하고 여름에는 범위를 좁혀 더 상세한 지질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.

2014년에는 시마네와 아키타 앞바다, 2015년에는 홋카이도 주변에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.

일본은 3월 태평양 쪽인 아이치 앞바다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메탄가스를 분리하는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.

<불타는 얼음>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결합해 얼음처럼 굳은 것으로, 천연가스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6/10>